

순천시, 신청사 건립 2025년 말 입주 목표 '첫 삽'

지하 1층·지상 6층... 새 랜드마크로 원도심 활력 기대 주차장 520면 조성...41개 부서 960여 명 직원 입주

순천시가 22일 신청사 건립 부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순천시 이날 신청사 건립 부지에서 노관규 시장과 정병희 순천시의회장, 지역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하고 성공적인 신청사 건립을 기원하는 기공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순천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공식은 풍물놀이와 현악 3중주, 순천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및 신청사 홍보영상, 기념사, 축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신청사 건립의 첫 삽을 뜨는 시삽식과 함께 K-디즈니 순천의 포부를 담은 애니메이션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순천시 신청사는 현 청사를 포함해 동측으로 확장한 2만 6758㎡ 부지에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4만 7048㎡ 규모로 건립된다.

올해 말 착공한 뒤 2025년 말 입주, 2026년 11월 총괄 준공을 목표로 달려갈 계획이다.

신청사는 기존 청사와 달리 본청과 의회 청

사를 분리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특히 옥외에는 중앙공원과 더불어 건물 사이 곳곳에 크고 작은 6개의 중정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는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 북카페, 종합민원실, 직장어린이집, 금융기관 등이 들어섬, 2층부터 6층은 업무공간, 3층은 구내식당과 코워킹스페이스(협업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지하에는 중앙공원 하부를 활용해 주차장 520면을 조성한다. 신청사에는 41개 부서 960여 명의 직원이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청사가 협소한 탓에 부서가 이곳저곳 분산돼 통합 민원 처리가 불편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165억 원으로, 청사 신축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1940억 원의 시정사 건립기금을 조성했다.

신청사 옆 장전 우수저류시설 부지에는 원도심 문화스테이션이 건립된다.



22일 전남 순천시 신청사 건립 부지에서 노관규 순천시시장과 정병희 순천시의회장, 지역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건립 기공식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순천시청 제공)

문화스테이션은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만 2438㎡ 규모로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로컬푸드판매장,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주차장 등 6층의 시설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신청사 건립은 단순하게 시정을 짓는 것을 넘어 미래 100년 순천시

민의 집을 짓는 뜻깊은 사업이다"며, "쾌적한 업무공간과 편의시설을 확보해 시민에게 편리하고 통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순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신청사와 문화스테이션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군, 군정평가 및 자문위 개최...군수 공약 추진 점검

고흥군은 지난 21일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공영민 군수와 군정평가 및 자문위원, 간부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 군정평가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수 공약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역할을 하는 '고흥군 군정평가 및 자문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이연숙 위원장 주재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5개월간 군수 공약 추진사항에 대한 담당 부서장들의 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토론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약 추진사항을 경청한 후 군민 눈높이로 바라본 실질적인 자문 의견을 제시하며, 고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영민 군수는 위원들에게 "공약 추진사항을 꼼꼼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내실있게 추진해 군민 행복과 고흥 변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여수시,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 오늘 첫 삽 150억원 투입 2025년 상반기 개관 목표...도심 속 정원 거듭나



여수시가 26일 오전 11시 선소유적 내에서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선소테마정원'은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195억 원이 투입, 선소유적 내 지상 2층 규모의 선소테마영상 전시관과 한옥화장실,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특히 정원의 중심인 '여수 선소테마영상전시관' 내부는 '깨어난 바다, 되살아난 훈'을 주제로 실감영상·융합형 체험콘텐츠·미디어 아트 등 신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전시 기법을 활용

용, 여수시와 선소유적 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유기적 관계를 담아 낼 예정이다.

여수시는 관광문화자원 개발, 남해안권 종합발전 및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만 5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이날 기공식은 정기명 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선소상가변영원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시작을 알리고 안전 시공을 다짐하며 사업 경과보고, 티치버튼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선소유적은 역사적 공간을 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도심 속 정원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여수시의 관광과 문화유산을 결합하는 문화거점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광양시, 해양수산특화 복합문화공간 '광양수산물유통센터' 개장

광양시는 테마형 수산물 복합센터(유통+의식+문화 등)로 전남 동부권의 수산물 유통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광양수산물유통센터'가 22일 향남9로 609(중마 일반부두 앞)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서동용 국회의원,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등 관련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한 먹거리 거점 공간으로 광양수산물유통센터의 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을 축하했다.

'광양수산물유통센터'는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에 값싸고 싱싱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립됐으며 대지면적 6,303㎡(1,906평), 건축면적 2,152㎡(651평), 연면적 6,951㎡(2,102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키크랩, 활어, 패류, 건어물 등을 취급한다.

지상 1층은 ▲수산물 도매시장, 편의점으로 운영되며 계절별, 지역별로 생산되는 다양한 수산물이 전국 산지에서 도매 공급되고, 해수(원수)는 경남 하동군 수협에서 공급받는다.

특히, 지역 수산물의 안정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물 방사능 및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상 2~3층은 ▲상차림 식당 및 수산물 전문 음식점으로 운영돼 안전하게 공급된 품질 좋은 최상품의 각종 수산물을 즉석에서 맛볼 수 있다.

또한 대회의실(100석), 소회의실(20석), 어린이놀이방 및 수유실 등은 각종 단체에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개방해 지역에 필요한 각종 모임 및 회의의 장소 등으로 제공된다.

지상 4층은 ▲카페, 홍보라운지 및 버스킹장소 등으로 운영되며 광양과 여수를 잇는 '이순신대교'의 웅장한 모습과 함께 광양 앞바다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다채로운 야경을 즐길 수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보성군, 오이 주제 지역특화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보성군은 지난 21일 벌교농부회(정보화마을)에서 보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을 '오이'를 주제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전문 지도사를 초빙해 오이 재배 동향부터 오이의 재배 특성, 토양 및 양수분 관리, 양액재배 기술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34명의 교육생은 이론 교육 후 실제 현장 농가를 방문해 농가 상황에 필요한 영농정보 제공 및 현실적인 문제 등을 살펴봤다.

2023년 보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특화 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에서 △사인머스켓, △대마(삼), △토마토, △딸기, △고추, △오이 등 6가지 작목을 대상으로 이론 및 현장 교육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348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교육에 참석한 벌교농부회(정보화마을) 회원은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가에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